

IT SoC News

TSMC 0.18Micron High-Voltage Technology 양산체제 돌입

대만의 TSMC는 최초로 40volt, 0.18micron HV 기술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칩의 개수와 파워, 면적 등을 줄여 줌으로써 휴대용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단일 칩 형태의 TFT LCD 드라이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TSMC의 0.18micron 공정 기술을 이용하면 설계자는 TFT 디스플레이의 늘어난 배터리 수명에 맞는 정교한 파워 제어 IC와 표준 LCD 소스 드라이버, 드라이버 게이트 칩을 결합함으로써 칩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최신 모바일 폰에 지원되는 하이엔드 VGA 디스플레이를 위한 TFT 또는 CSTN 드라이버와 그래픽 컨트롤러 같은 SoC도 만들 수 있다. 이 새로운 공정은 모든 로직과 아날로그 IP,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며 파워나 면적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 비용까지 줄여준다. 또한 TSMC는 개인용 휴대 시스템에 맞는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OTP(One-Time Programmability)와 MTP(Multiple-Time Programmability)가 가능한 특수한 IP 구성요소(element)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TSMC의 0.18micron HV 기술은 빠르고 저렴한 검증이나 엔지니어링 샘플을 위한 TSMC의 CyberShuttle prototyping 서비스에도 적용되며 골드 범핑을 비롯한 백엔드 서비스 역시 TSMC를 통해 제공된다고 한다.

미·중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중국과 미국의 산·학·관·연 지도자들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세미나를 가졌다고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가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세미나에서 SIA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중국 업체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법인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IA의 조지 스칼리스(George Scalise) 회장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모든 기술 기반 산업의 초석이다. 중국은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없으면 기술 기반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칼리스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반도체 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것의 모든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혁신적인 설계나 공정 기술은 반도체 부가가치의 거의 모든 것이며,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 건강하고 경쟁적인 반도체 산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스칼리스는 또한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에 가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WSC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유럽, 대만이 가입되어 있다.

스칼리스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기술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기술의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기술의 공급자가 거래의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확실할 수 있을 때 반도체 디바이스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원하는 그들의 소비자와 더욱 가깝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없다면 정보의 공유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명백한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결국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세미나는 미·중 통상 무역위원회 산하 정보산업워킹그룹의 2004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미 iSuppli사, 2005년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 전망 하향조정

미국 iSuppli사는, 2004년 및 2005년 세계반도체시장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04년 반도체시장의 매출액은 2,26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2005년은 전년대비 4.7% 성장한 237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iSuppli사는 지금까지 2005년의 매출액을 「전년대비 9.6% 증가」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것을 하향 조정했다. 2005년은 반도체시장을 견인하는 전자부품생산이 전년대비 6.2% 증가에 그쳐, 2004년의 10.1% 증가보다 줄어든 전망이다.

또한, 2004년 제3사분기에 반도체 재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초에는 이들 재고를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러한 과잉재고가 2005년 ASP(평균판매가격)저하를 불러,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고 iSuppli사는 말했다.

FSA 발표, 팹리스업체 2004년 3분기 매출액 작년 동분기보다 30% 증가

미국의 FSA(Fabless Semiconductor Association)는 "2004년 3/4분기 세계 팹리스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세계 팹리스 업체의 2004년 3/4분기 매출이 작년 동분기 대비 30%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팹리스 산업의 총 매출은 83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의 팹리스 업체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19%로 그 뒤를 따랐으며 유럽과 중국이 각각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다.

FSA가 발표한 TOP10 팹리스 업체

1. QUALCOMM (QCT Division)	6. Xilinx, Inc.
2. Broadcom	7. MediaTek Incorporation
3. ATI Technologies	8. Marvell Semiconductor, Inc.
4. nVIDIA Corporation	9. Altera
5. SanDisk Corporation	10. Conexant Systems